

◆교회목표◆

천국일꾼을 키우자
지역사회에 봉사하자
우리 세대에 민족복음화를 이룩하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자

주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누가복음 14:23)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디모데후서 1:14)

발행처: 대한예수교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신성중 편집인:오태희 편집국장:조선근

1994년도 실행부서 인사 확정

오늘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 임명
12월 19일 교회학교 교사 및 찬양대원 임명

지난 12월 5일 위원장 및 각 부서장의 임명에 이어 오늘부터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 실행부서의 임명이 시작된다. 오늘은 IV부 예배 시간에 서리집사 및 구역권찰을 임명한다. 또한 12월 19일(다음주일)에는 교사와 찬양대원이 임명되는데 찬양대원은 해당 예배 시간에, 교회학교 교사는 대학, 청년, 장년1,2,3,4, 소망, 탁아부는 III부 예배에,

영아, 유치, 초등1,2,3,4,5,6, 중등, 고등, 새가정, 예바다, 사랑, 영어교육, 탁아부는 IV부 예배 시간에 임명한다. 또 12월 26일에는 교구일꾼을 임명함으로 내년도 모든 교회일꾼의 전임이 끝나게 된다.

또한 당회는 각 위원회의 실행부서의 인사도 확정했다. 예배위원회는 예배부·성례부·안내부·영어부를 선교위원회의 실행위

원, 봉사위원회의 차량관리부원, 집사회, 권사회, 찬양위원회의 찬양대원, 교육위원회의 각 부서 교사, 교육훈련원 경모대학의 교사, 새가족위원회의 양육위원들을 각각 확정하여 임명하게 된다.

이제 급원을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계획과 각으로 새해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할 것이다.

교사·찬양 양성부 및 주간성경공부
오늘 수료식, 총 772명 수료

오늘 저녁 찬양예배 시간에 교사양성부, 찬양대원 양성부 및 주간성경공부의 93년도 제2학기 수료식이 있다. 지난 9월 4일에 개강한 성경연구원은 2학기 과정을 모두 마치고 종강했는데 제39기 교사 양성부 수료자는 223명, 제9기 찬양대 양성부는 136명, 주간성경공부 및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는 413명이 이수하게 된다.

수료식에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개근상과 모범상을 수여하게 된다. 다음 학기는 1994년도 3월에 있을 예정으로 수강신청은 2월 중순에 받게 된다.

93년도 하반기 감사 실시

12월 5-26일, 선교관 404호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장(최대원 장로)은 93년도 하반기 감사를 실시한다. 12월 5일(주일) ~ 26일(주일)까지 주일 오전 11시 ~ 오후 4시 30분까지, 수요일 오후 1시 ~ 3시 30분까지 선교관 404호에서 실시하게 된다. 감사 해당 부서는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기간중 반드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각 교구별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

급주에 새신자 환영 및 연말모임을 갖는 교구는 다음과 같다.

- 제9교구 새가족환영회, 오늘, 14:30, 메추라기홀
- 제10교구 새가족환영 및 교구단합 모임 16일(목), 19:00, 메추라기홀
- 제11교구 새가족 환영 및 교구단합대회 오늘 14:30, 봉사관
- 제22교구 새가족환영회 16일(목), 18:30, 칼빈홀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 김진경 총장 오늘 저녁 찬양예배 설교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의 김진경 총장이 12월 12일(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게 된다. 또한 찬양예배 후 갈릴리움에서 '오늘의 북한 실정'에 대한 슬라이드 상영을 하게 된다.

중국연변과학기술대학은 중국에서 인정된 최초의 사립대학으로 1992년 9월에 산업기술훈련학교로 개교한 이래 1993년 9월 9일 4년제 대학으로 개교했다. 현재 300여명의 재학생이 있는데 조선어로 강의하며 교직원과 교수들 중 많은 사람이 한국에서 간 사람들이다.

현재 1993년 9월에 개교한 본과대학(공과대학, 상경대학), 전문대학(실용무역학과, 실용영어학과), 산업기술 훈련학교(92년 9월 개교, 기아기술훈련원, 건설기술훈련원, 동아건설 훈련원)이 있다.

이곳의 학생들은 중국에 있는 250만명의 조선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서울에 (사)연변과학기술대학 후원회가 결성되어 있어 이 학교를 돕고 있다.

김성관 전도사, 도서 300여권 기증

한국에 나와서 신학공부를 끝내고 미국으로 돌아간 김성관 전도사가 자신이 공부하던 책을 후배들과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 보도록 도서관에 기증했다. 양서 272권과 동서 46권으로 총 318권을 기증했는데 양서는 주석류와 선교관계 및 기타 신학도서들이고 동서는 주로 교회사 및 선교관련 책들이다.

'복음전파'를 위한

가칠봉 십자탑 점등돼

군전도회 후원으로 30일간 지속

북녘땅에 예수 탄생하심을 알리기 위해 세워진 십자탑이 지난 7일 동부전선 최전방 강원도 OO군 가칠봉에 점등됐다.

군전도회(회장 김재명 장로)는 지난 7일 강원도 OO사단 가칠봉에 방문하여 십자탑 점등식을 기념한 예배를 드리고 북한의 복음화를 기원하는 기도회 시간을 가졌다. 이 점등식에는 전도위원회 지도 임성환 목사를 비롯한 남·여 교역자 15명과 노광현 장로, 마성락 장로를 비롯한 호산나 찬양대원과 남여 회원 56명이 참가하였다.

이날 예배는 사단 군중참모인 원중권 목사의 사회로 시작돼 최인근 목사의 대표기도, 충현교회 성가대의 특별찬양으로 이어졌고, 임성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 탄생하심의 기쁨이 이 빛을 통해 동토의 땅인 북한 땅에도 전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동 사단의 사단장은 축사를 통해 '백사할 거부 등 북한의 남침야욕이 계속되는 이 시기에 평화를 알리는 십자탑이 점등

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라며 '어려운 기도가 평화통일을 앞당기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점등식이 끝난 후 간담회는 노광현 장로와 사단장이 축하 시루떡을 전달함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선장병들과 화기애애한 교제시간을 가졌다.

군전도회측은 지난 92년 최전선에 세워진 십자탑으로는 13번째인 십자탑을 이곳 가칠봉에 설치해 매년 방문을 하고 있으며, 군의 복음화와 북한선교를 위해 위문방문 및 진중세례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방문길에는 교회건축을 지원해 기로 한 동 사단 OO 대대 '사랑교회'에 들러 건축을 위해 예배를 드렸고 건축현금도 전달하기도 했다. 지난달 2월부터 공사를 시작한 '사랑교회'는 인근 부대의 군인들을 위해 개방될 것이며 공사가 끝나는 대로 헌당예배를 드릴 예정이다.

이 십자탑은 94년 1월 8일까지 30일간 점등된다.



전화로 신성중 목사의 설교를, 교회안내도 함께

700-4403

한국텔레복음사에서는 전화로 메시지 및 교회안내 등을 하는 일을 하고 있다. 우리 교회의 당회장 신성중 목사의 설교도 텔레복음사의 전화이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다. 이 전화서비스는 메시지 뿐만 아니라 말씀묵상과 성서낭송, 신앙강론과 신앙예배, 교회소식 등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교회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고 싶을 때 또 전도대상자에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싶을 때, 생활하면서 말씀을 듣고 싶을 때 활용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성탄절과 새해를 맞아 12월 20일 ~ 26일까지는 성탄절 메시지가 12월 27일 ~ 94년 1월 2일까지는 송년 및 새해 메시지가 나간다.

성 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반드시 비유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교훈들을 비교하고 연구해보면 전부 다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란 천국의 무궁한 진리, 신비한 진리, 영적인 진리를 세상에서 들을 수 있는 일반적인 얘기로, 누구나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얘기로 표현한 것이 비유입니다. 이 시간에 살펴보고 하는 혼인잔치의 비유도 세상의 혼인잔치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천국잔치,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1. 비유의 내용

어떤 임금이 혼인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어떤 임금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임금이 되신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 잔치는 그의 아들을 위해서 배설을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배설했다는 말씀입니다. 신랑은 예수님이신데 신부는 교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바로 어린양의 혼인잔치인데 임금은 그의 잔치를 배설한 다음에 많은 사람을 초청했습니다. 본문에 두 번을 초청했다고 했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세 번까지 초청을 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얼마나 은혜가 지극하시고 공활이 많으신지 그를 거역하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시면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채우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임금되신 하나님께서 여러 번 우리를 초청했는데 이 초청은 세상의 혼인 잔치 초청과는 다릅니다. 이 왕의 초청은 의무적일 뿐만 아니라 가지 아니하면 반드시 그것에 대한 진노의 대가가 있는 그런 초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초청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왕이 잔치를 배설하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들이 오기를 싫어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상에서도 대통령이 만찬에 초청을 하면 다 갑니다. 국내에 있으면 물론이거니와 국외에 있으면 일정을 당겨서라도 얼른 돌아와서 만찬에 참석합니다. 그런데 본문에 나오는 왕은 대통령보다 더 권한이 많은 그야말로 삼권을 통수하는 사람인데 이 왕의 초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이렇게 준비했다,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다고 하며 초청했습니다. 두 번 초청하는 것은 당시 상류사회의 습관인데 이것은 복음시대의 은혜를 뜻합니다.

2. 임금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들

우리는 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과 택함을 사람은 반드시 같은 사람은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고 했습니다. 초청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한 사람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자기 상업차 가기 위해서 거절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핑계까지 냅니다. 한 사람은 밭을 샀으니 가봐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소 다섯 겨를 샀으니가 가야 하고 또 한 사람은 장가를 들었으니 불가불 가야 한다고 핑계를 합니다. 사실 전도를 해보면 이런저런 핑계가 얼마나 많은 지 모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거절의 내용을 분석해 봅시다. 하나는 밭을 샀으니가 못간다, 즉 부동산입니다. 사실 부동산에 정신을 빼놓으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은 상업차 간다고 그랬습니다. 사업문제로 못간다는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장가를 갔기 때문에 못간다, 즉 세상적인 쾌락 때문에, 가정문제로 못간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핑계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자신의 일에, 세상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신의 일을 하나님의 일보다 더

앞세워서는 안됩니다. 또 세상일을 천국의 일보다 앞세워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핑계를 무엇입니까?

3. 본문이 주는 교훈

첫째로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가 반드시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왕의 청함은 은혜적인 차원에서 모두에

충현강단



혼인잔치의 비유

(마 22:1-14)



신 성 종

<목사·당회장>

게 주십니다만 모든 사람이 택함을 입은 것은 아닙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택했습니까? 택함을 받았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택함을 입었는지 압니까?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내 구주시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고 마음속에 믿는다면 바로 여러분들은 선택함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신앙은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바로 택함받은 자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믿음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지만 우리는 거기에 물을 주고 기름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둘째로 잔치에 참여하려면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군인인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는 군복을 입었느냐 안입었느냐로 압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려면 천국의 유니폼이 있습니다. 의의 세마포 옷, 다시 말씀을 드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은 그 의의 세마포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 의의 세마포 옷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바로 그 옷입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받는 옷이 아닙니다.

셋째로 잔치에는 우리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양의 혼인잔치 바로 천국에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잔치에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우

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가리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십니다. 마치 옛날 혼인잔치에 가면 살진 짐승을 잡고 포도주를 준비하고 노래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천국잔치에 오셔서, 주일날 예배시간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배설한 천국잔치에 늦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에 늦으면 절대로 늦으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문은 시간이 지나면 닫혀집니다. 항상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죽은 뒤에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은 오늘날이 내 시간입니다.

우리는 천국잔치에 늦지 말아야 되겠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부터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늦는 버릇은 빨리 고칠수록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섯째로 핑계를 대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천국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댑니다. 우리도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어떤 핑계도 하나님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사업 때문에, 가정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등등 이런저런 핑계가 많습디만 그 핑계를 분석하면 전부 자신의 일, 세상 일 바로 성공 때문입니다. 무엇이 성공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성공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자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라면 그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성공이나 실패나 계산하는 것은 버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하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는데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복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복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잔치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없어야 하였습니다. 우리는 예복이 준비되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세마포,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세마포를 준비했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에 예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하나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면서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준비할 것은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해야 할 일, 천국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일을 잘 감당해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초청장을 많이 주시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빈자리가 있는 것은 우리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날에 부끄럼이 없도록 우리의 믿음을 준비하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하나님의 집을 채우고, 더 나아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

세금과 국민의식

우리 나라만큼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국민도 드문 것 같다. 이것이 바로 부정(不正)의 온상이 되었다. 물론 과거의 역사를 보면 관리들의 가렴주구가 심했던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가능하면 세금도 안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 후 군사 독재때에 특혜를 받는 무리들이란 것이 생겼고, 이들은 정경유착을 통해 세금을 많이 공제받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신한국 창조를 하는 가운데 이제는 세금을 내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이에 앞서 양심대로 보고하면 손해본다는 생각이 없어지도록 제도를 고치고 여러 가지 잘못된 관행들을 고쳐야 한다. 더욱이 믿는 성도들은 절세는 할 망정 탈세는 해서는 안된다. 십일조를 떼어먹는 것도 죄지만 탈세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되기 때문이다.

글 / 신 성 종 목사

오덕수 오영선 오정남 오준분 왕복남 왕진숙 우정자
유요종 유서규 유은옥 유정자 윤명자 윤신자 이경자
이복연 이성춘 이정분 이흥옥 이희순 임병계 임인순
장순자 전순희 전예순 전행자 정경옥 정경연 정길래
정애순 정윤아 정장근 조추자 지은자 최경순 최명옥
최상여 최선옥 한성숙 함윤자 홍순이

제14교구

남집사
권기태 권길동 김경철 김구현 김수일 김신원 김원구
김재범 김장조 김종만 김철환 김희태 박근업 박영봉
박호용 박희봉 염은식 예종배 유영규 윤재춘 이기찬
이길남 이성섭 이성직 이영남 이운봉 이의섭 이춘명
장경수 장석순 전세현 전인걸 정무일 정연봉 정영길
정영덕 정한봉 정홍관 진학래 최두철 최상조 최성국
최은식 한승환
여집사
강승연 박도운 박진희 권기순 권수정 권종희 김경숙
김경은 김경자 김경희 김두연 김 란 김선홍 김순애
김영숙 김윤경 김재순 김경순 김경애 김춘자 김현자
김희숙 남숙자 노영희 도성희 동지현 류옥순 마경자
명유진 문재순 문정덕 박경연 박순순 박명란 박부강
박성권 박신자 박애실 박행자 배연식 변옥희 서정자
서정희 소길순 송동준 송옥현 신경순 신귀숙 안용녀
양길순 양명자 오순희 우명자 유명자 유화자 유효송
이경순 이경임 이경자 이귀자 이상세 이서륜 이승희
이아연 이영옥 이은단 이형순 임정자 임정희 임현숙
장복배 장철자 전순순 정순이 정순자 정영희 정영희
정 옥 정향순 조복순 조분자 조정숙 최순희 최영희
최인선 태명자 하일상 한명자 한 복 한숙영 한영애
한애영 황환옥

제15교구

남집사
강예모 김규태 김도현 김명필 김병건 김영달 김영진
김운실 김원주 김계성 김경경 김경표 김재건 김한옥
김창호 김한원 김홍래 문호식 박경열 박상태 박석두
박영석 박원화 박창규 배봉식 백은홍 백 종 신진중
신현창 안성식 안세현 양승길 오은도 윤순규 윤해근
이길재 이동진 이연호 이상영 이상태 이석재 이승구
이영재 이원상 이재균 이장관 이장구 이정선 이종갑
이창우 이태근 이호연 이효상 임집택 강세기 정은환
장재순 조은성 조호현 전경문 최대주 최동규 최선두
최정현 한두부 함용식 허 중
여집사
김정자 강신자 고순산 권노희 권영제 권 정 김경혜
김경희 김계수 김광연 김명숙 김명숙 김명순 김명환
김미혜 김봉숙 김현영 김성숙 김성주 김승자 김연순
김영민 김영숙 김영은 김영자 김옥선 김은자 김정선
김정선 김현숙 김현숙 김희숙 나순애 노경숙 노은옥
마현미 문애경 문정운 민경애 박경자 박길녀 박승애
박영자 박옥자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박지현
박혜순 박숙현 박현옥 박희숙 서귀순 서승남 서정희
손영희 송숙자 신정숙 신자식 심정례 심정자 안숙자
안정혜 양재순 여갑선 오영란 오현자 옥영옥 유순원
유영희 유옥순 유일옥 유순남 윤 순 이경옥 이금선
이미경 이상동 이선옥 이숙자 이용희 이윤경 이연향
이정미 이정숙 이준희 이용자 이효순 임순복 임희순
장원숙 장정연 정길자 정복순 조순남 조순애 조유자
조정희 조종남 조희영 주영희 최경숙 최명초 최은희
한영란 허종순 현혜숙 홍복기 홍성순 홍현희 홍희숙
황주옥

제16교구

남집사
권무용 김기완 김남식 김덕호 김선기 김원호 김진호
김태진 김현경 김형중 김환호 민재환 박용한 박준배
박창식 방 익 백복학 소재철 신현호 양규석 오봉식
오철민 오현구 유승호 유재훈 이승계 이재철 이정태
이전복 이현상 장성길 정순팔 최규환 최상기 최종배
최종옥 현보경 현은석 허용만
여집사
강전숙 공필수 구복희 권필호 김경자 김계희 김기향
김금순 김미자 김명순 김순이 김선희 김행규 김영숙
김유순 김은영 김춘자 김명숙 김현진 김원주 김혜숙
김화순 나순애 나원자 나희태 노본선 류순옥 박경애
박봉연 박성자 박한숙 박인순 박진희 배정자 백광희
서정희 서홍순 정명선 송옥진 신경실 신은숙 심현경
안옥자 유필래 유인화 유재현 유영자 윤봉순 윤봉연
윤부기 이국숙 이근택 이기정 이희희 이순희 이영호
이영옥 이현순 이영희 이숙순 이창자 이창현 이창희
이현주 임남영 장성실 장화수 전유강 전현선 정명자
정문배 정복득 정명숙 정명희 정혜진 지영은 최영숙
최영순 최영미 최영민 최현희 최현숙 한성숙 한정희
홍정선 홍현기 황지희

제17교구

남집사
장석인 장신호 권영일 권인택 김규태 김규석 김동영
김명미 김복희 김상길 김연배 김영길 김용숙 김이열
김복태 김재순 김종진 김종영 김동진 김태호 김홍우

나종원 박광식 박규철 박노봉 박문선 박범익 박영덕
박영기 백재성 변인식 송영상 신용환 안성영 오세익
유창식 윤병조 윤성수 윤영모 윤장원 이계옥 이구연
이남복 이대길 이덕영 이명진 이병두 이선우 이영표
이유성 이정기 이종훈 이준진 이현규 임덕일 전세중
전태영 정관용 정관익 정래명 정효석 조은수 최기홍
최홍식 최영래 하재명 한병원 한영태 한흥연 홍만운
여집사
강동화 강수자 강순희 강영자 강인애 강춘희 고숙기
고효영 공인화 권복순 권영남 권영주 김인숙 김경애
김길자 김남희 김남희 김두순 김미열 김복순 김복임
김복희 김복희 김석영 김선희 김수자 김숙자 김숙자
김순남 김순임 김순희 김신자 김영하 김용숙 김유자
김자에 김재숙 김정연 김경화 김주옥 김지선 김차금
김희종 문경희 박선희 박영옥 박영자 박옥순 박옥숙
박재경 박정순 박종숙 박진배 박현숙 박현주 박효순
백영주 백옥자 변예선 서귀순 서삼옥 손정애 심영숙
양명자 양순덕 양옥자 엄선자 여신자 오세은 오순자
우영희 원경희 유순녀 유필래 유금자 윤송숙 윤익열
윤정희 이길자 이명숙 이명숙 이요남 이복희 이순애
이승연 이애자 이양현 이영순 이옥자 이인순 이장옥
이정옥 이진자 이홍순 이희주 임복덕 장명자 장세정
장유진 전순정 정상화 정순금 정옥점 정원남 정운신
조연이 조영자 천상순 천이자 최수애 탁경미 한성실
한외조 허건오 허영임 황선혜

제18교구

남집사
권백용 권영복 김달현 김만수 김상백 김석근 김용조
김용수 김종옥 김종태 김종학 김창국 김현식 노수식
박경용 박광대 박규연 박남주 박재현 송삼규 신문진
신언길 안상익 안지홍 안희정 양기수 양은식 엄규영
오철환 이진호 이미주 이상범 이상복 이상호 이영철
이정근 이준식 이지은 이상옥 임광선 임세봉 장종권
전병남 전종일 장문성 정성고 정세용 정인선 정인선
조기택 조석남 최남희 최만복 최성조 최수영 최우근
최홍규 하장호 황인주 황재현 황호철
여집사
강미숙 강옥희 고남봉 고임순 구영희 김미리 김보옥
김정희 김아진 김영숙 김영혜 김용숙 김월배 김은순
김지연 김춘식 김춘숙 김현순 김효순 남영순 남옥순
노정숙 류동숙 박귀순 박명희 박상남 박성순 박영희
박원아 박유주 박임순 박정순 박정희 박현배 방신자
박복자 변옥선 변춘길 서양숙 성춘순 손옥자 신명순
심재현 안창자 여갑남 유기준 유남순 유혜자 윤자옥
윤병중 이경희 이귀남 이명재 어은은 이선화 이숙희
이순열 이영숙 이영순 이영의 이옥숙 이은복 안정숙
임경순 임복래 임선자 임정일 임학선 전길복 전옥미
전재숙 전현선 정귀일 정상순 정옥자 정정영 정정진
조수민 조옥배 주순정 차 화 채자연 채혜선 최옥선
최성자 최인성 최진희 최정현 하두연 한금자 한명순
현승조 홍만희 홍명희 홍예경 홍은기 황명숙

제19교구

남집사
곽진형 김대용 김삼열 김승기 김용조 김일주 김한태
김형만 노영한 류종요 박노태 박태권 박해권 박홍남
방창식 손종원 양한원 유갑남 윤찬환 이대규 이무열
이부성 이상복 이상재 이은희 이지환 이찬재 임형호
정규호 정안석 조희구 지영일 최영민 최준석 하남철
황선용
여집사
강순금 강신순 강옥렬 강종애 고득순 고지현 황계자
김경순 김말선 김미자 김성자 김순남 김양녀 김영옥
김장숙 김주분 김희숙 박명자 박숙희 박정숙 방희정
송정순 신연임 심조갑 안정순 오옥희 유기열 유동희
윤 정 이정미 이길순 이영주 이수인 이수자 이정미
이정숙 이정애 이현순 이혜숙 이혜심 임애규 임태개
장정훈 전문옥 장임순 장희진 주광애 최영옥 한광숙
한명숙 홍인숙 황진순 황혜선

제20교구

남집사
장창원 장태주 고현택 고광득 고근하 규재순 김규식
김남근 김명철 김병진 김성수 김진주 김영호 김원봉
김철필 김익수 강경영 강계경 김정길 김준배 김태호
김택진 김철근 김형정 김희태 김희희 남명선 박준배
민조식 박만홍 박명덕 박성권 박순규 박순호 박우현
박문배 박문순 박태진 박태재 박복우 손동기 손은익
손창익 송수열 송인갑 신택일 신민택 황규석 황재배
유종근 윤명범 이라희 이준현 이성근 이영희 이희석
이정기 이현철 이정은 이종성 이현규 이창희 임태진
장지두 장진현 장 진 조영배 조필근 조홍표 최만집
최명희 최용익 홍인식 홍홍기
여집사
강수연 강현희 고진순 박숙민 국현숙 구재경 권명숙
권종순 김갑순 김경연 김경옥 김경희 김계자 김동금
김말순 김명도 김명숙 김미란 김봉순 김갑순 김순남
김순영 김순자 김재명 김연옥 김명희 김정은 김재남
김은호 김충자 김남자 김효영 남상인 남우순 노효영
박정복 문영남 한병민 박경희 박귀진 박옥희 박은숙

제21교구

남집사
고광국 고문봉 고한배 권석태 권시호 권영진 김경환
김교동 김성호 김세홍 김영근 김영복 김영선 김영환
김종규 김종원 김중현 김주현 김철덕 박우영 박병은
박신홍 박완용 박종옥 백 남 서연식 서영삼 송영주
송한성 송효종 신원동 안동희 안병호 안신광 예정호
우기섭 우종근 유영일 유형근 윤종필 이광국 이근수
이종원 이준희 이형찬 정영환 정태석 정대은 차정자
최원일 한관수 한종현 허광만 홍석표 홍치순
여집사
강석복 강석주 강영옥 고영득 고은정 공순자 구유진
김광숙 김덕희 김명순 김명희 김석순 김수영 김숙자
김순덕 김순희 김양자 김연태 김월선 김은영 김인옥
김정숙 김종성 김 철 김학원 나승순 남순자 남은희
문현정 박금숙 박순래 박신남 박애희 박재임 박춘옥
배미영 배순래 백정순 백진옥 서영자 성미선 소복남
손양숙 송양인 송화정 안옥자 임태일 오수옥 오지현
유재춘 이강자 이명자 이명자 이미애 이순남 이애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은선 이은진 임영자
장신자 장재분 장성자 장숙자 장숙희 장순화 장희숙
정정숙 정희공 조미희 조순희 조옥희 최명희 최영옥
최요순 최창희 한미원 황광옥 황순화

제22교구

남집사
강영철 고전석 김병운 김봉중 김차철 남용순 박명수
박명기 박용진 배도남 백종현 석일식 손기현 손정오
안순현 오동환 옥병은 유익현 유종근 이규선 이성일
이정립 임세규 정영수 정영창 전성옥 정병익 정영호
정태수 정태영 조산용 최주환 한일연 함철주 황기용
여집사
강창아 강진환 김덕순 김도희 김말순 김병희 김복자
김부덕 김문연 김승자 김수영 김순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승애 김명옥 김은덕 김조향 김해복 문금안
박명숙 박복순 박순도 박정숙 백민복 백현배 변정자
봉미자 서정순 서정숙 서종남 송광옥 신금순 신선원
신주영 신현화 심영숙 심영순 안정자 연희숙 우명선
유명숙 유영자 유주옥 유지순 윤명숙 윤계선 이근자
이귀남 이귀래 이길자 이선녀 이수자 이순복 이순자
이영순 이옥목 이옥순 이은자 이은옥 이진래 이은자
이희표 임선애 임정순 장현순 장규덕 정금순 정금자
정옥자 정화순 정희숙 조경순 조명자 조완희 지이연
차봉순 최광숙 최귀순 최길자 최순길 최정영 최춘희
한애현 한연순 한정옥 함순라

제23교구

남집사
공병식 김만중 김병문 김명수 김은수 김재은 김현관
류서태 박원규 박춘만 서순식 서철호 안덕호 안용현
오성철 유옥순 유현봉 유현화 유현중 이기용 이선영
이예경 이재옥 이형수 정윤근 전인환 정대영 정래부
정장원 조승철 한석연 한용호 홍성철
여집사
강민경 강옥자 강춘희 강도립 고현숙 권석애 권정순
김경자 김성숙 김명애 김명희 김철순 김희순 나순희
박삼순 박숙희 박은은 박진래 박하영 박군자 박소애
서정애 정철순 신진숙 송유자 심정례 안상숙 양배주
양순남 양순자 양영숙 오인옥 오정자 유상순 이경자
이은표 이상환 이상금 이숙녀 이준희 임정자 정은애
조명자 주선영 진명희 최영순 최영희 최정순 최현숙
최희숙 한경하 현영희 황은미

제24교구

남집사
강창원 장태주 고현택 고광득 고근하 규재순 김규식
김남근 김명철 김병진 김성수 김진주 김영호 김원봉
김철필 김익수 강경영 강계경 김정길 김준배 김태호
김택진 김철근 김형정 김희태 김희희 남명선 박준배
민조식 박만홍 박명덕 박성권 박순규 박순호 박우현
박문배 박문순 박태진 박태재 박복우 손동기 손은익
손창익 송수열 송인갑 신택일 신민택 황규석 황재배
유종근 윤명범 이라희 이준현 이성근 이영희 이희석
이정기 이현철 이정은 이종성 이현규 이창희 임태진
장지두 장진현 장 진 조영배 조필근 조홍표 최만집
최명희 최용익 홍인식 홍홍기
여집사
강수연 강현희 고진순 박숙민 국현숙 구재경 권명숙
권종순 김갑순 김경연 김경옥 김경희 김계자 김동금
김말순 김명도 김명숙 김미란 김봉순 김갑순 김순남
김순영 김순자 김재명 김연옥 김명희 김정은 김재남
김은호 김충자 김남자 김효영 남상인 남우순 노효영
박정복 문영남 한병민 박경희 박귀진 박옥희 박은숙

백정숙 변금순 변혜숙 송선철 송경희 신일순 심일남
연경애 오정미 유정선 윤대순 윤애영 윤인순 이경자
이경자 이근옥 이혜이 이덕상 이민숙 이순옥 이영숙
이은복 이정덕 이창숙 이현태 이현옥 이화엽 임용재
장민화 장신복 장옥순 장정애 장정자 장혜자 전복실
전옥희 전정수 정경희 정성숙 정정에 정현자 정혜원
정효은 조순애 조정에 진경애 진태숙 최계순 최신란
최양옥 최영선 최영옥 최옥숙 최정일 최혜옥 하미숙
한정숙 홍연애 황방자 황영림

제21교구

남집사
고광국 고문봉 고한배 권석태 권시호 권영진 김경환
김교동 김성호 김세홍 김영근 김영복 김영선 김영환
김종규 김종원 김중현 김주현 김철덕 박우영 박병은
박신홍 박완용 박종옥 백 남 서연식 서영삼 송영주
송한성 송효종 신원동 안동희 안병호 안신광 예정호
우기섭 우종근 유영일 유형근 윤종필 이광국 이근수
이종원 이준희 이형찬 정영환 정태석 정대은 차정자
최원일 한관수 한종현 허광만 홍석표 홍치순
여집사
강석복 강석주 강영옥 고영득 고은정 공순자 구유진
김광숙 김덕희 김명순 김명희 김석순 김수영 김숙자
김순덕 김순희 김양자 김연태 김월선 김은영 김인옥
김정숙 김종성 김 철 김학원 나승순 남순자 남은희
문현정 박금숙 박순래 박신남 박애희 박재임 박춘옥
배미영 배순래 백정순 백진옥 서영자 성미선 소복남
손양숙 송양인 송화정 안옥자 임태일 오수옥 오지현
유재춘 이강자 이명자 이명자 이미애 이순남 이애숙
이영숙 이영숙 이영순 이영순 이은선 이은진 임영자
장신자 장재분 장성자 장숙자 장숙희 장순화 장희숙
정정숙 정희공 조미희 조순희 조옥희 최명희 최영옥
최요순 최창희 한미원 황광옥 황순화

제22교구

남집사
강영철 고전석 김병운 김봉중 김차철 남용순 박명수
박명기 박용진 배도남 백종현 석일식 손기현 손정오
안순현 오동환 옥병은 유익현 유종근 이규선 이성일
이정립 임세규 정영수 정영창 전성옥 정병익 정영호
정태수 정태영 조산용 최주환 한일연 함철주 황기용
여집사
강창아 강진환 김덕순 김도희 김말순 김병희 김복자
김부덕 김문연 김승자 김수영 김순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승애 김명옥 김은덕 김조향 김해복 문금안
박명숙 박복순 박순도 박정숙 백민복 백현배 변정자
봉미자 서정순 서정숙 서종남 송광옥 신금순 신선원
신주영 신현화 심영숙 심영순 안정자 연희숙 우명선
유명숙 유영자 유주옥 유지순 윤명숙 윤계선 이근자
이귀남 이귀래 이길자 이선녀 이수자 이순복 이순자
이영순 이옥목 이옥순 이은자 이은옥 이진래 이은자
이희표 임선애 임정순 장현순 장규덕 정금순 정금자
정옥자 정화순 정희숙 조경순 조명자 조완희 지이연
차봉순 최광숙 최귀순 최길자 최순길 최정영 최춘희
한애현 한연순 한정옥 함순라

제23교구

남집사
강영철 고전석 김병운 김봉중 김차철 남용순 박명수
박명기 박용진 배도남 백종현 석일식 손기현 손정오
안순현 오동환 옥병은 유익현 유종근 이규선 이성일
이정립 임세규 정영수 정영창 전성옥 정병익 정영호
정태수 정태영 조산용 최주환 한일연 함철주 황기용
여집사
강창아 강진환 김덕순 김도희 김말순 김병희 김복자
김부덕 김문연 김승자 김수영 김순선 김순옥 김순자
김순자 김승애 김명옥 김은덕 김조향 김해복 문금안
박명숙 박복순 박순도 박정숙 백민복 백현배 변정자
봉미자 서정순 서정숙 서종남 송광옥 신금순 신선원
신주영 신현화 심영숙 심영순 안정자 연희숙 우명선
유명숙 유영자 유주옥 유지순 윤명숙 윤계선 이근자
이귀남 이귀래 이길자 이선녀 이수자 이순복 이순자
이영순 이옥목 이옥순 이은자 이은옥 이진래 이은자
이희표 임선애 임정순 장현순 장규덕 정금순 정금자
정옥자 정화순 정희숙 조경순 조명자 조완희 지이연
차봉순 최광숙 최귀순 최길자 최순길 최정영 최춘희
한애현 한연순 한정옥 함순라

제24교구

남집사
공병식 김만중 김병문 김명수 김은수 김재은 김현관
류서태 박원규 박춘만 서순식 서철호 안덕호 안용현
오성철 유옥순 유현봉 유현화 유현중 이기용 이선영
이예경 이재옥 이형수 정윤근 전인환 정대영 정래부
정장원 조승철 한석연 한용호 홍성철
여집사
강민경 강옥자 강춘희 강도립 고현숙 권석애 권정순
김경자 김성숙 김명애 김명희 김철순 김희순 나순희
박삼순 박숙희 박은은 박진래 박하영 박군자 박소애
서정애 정철순 신진숙 송유자 심정례 안상숙 양배주
양순남 양순자 양영숙 오인옥 오정자 유상순 이경자
이은표 이상환 이상금 이숙녀 이준희 임정자 정은애
조명자 주선영 진명희 최영순 최영희 최정순 최현숙
최희숙 한경하 현영희 황은미

제25교구

남집사
강창원 장태주 고현택 고광득 고근하 규재순 김규식
김남근 김명철 김병진 김성수 김진주 김영호 김원봉
김철필 김익수 강경영 강계경 김정길 김준배 김태호
김택진 김철근 김형정 김희태 김희희 남명선 박준배
민조식 박만홍 박명덕 박성권 박순규 박순호 박우현
박문배 박문순 박태진 박태재 박복우 손동기 손은익
손창익 송수열 송인갑 신택일 신민택 황규석 황재배
유종근 윤명범 이라희 이준현 이성근 이영희 이희석
이정기 이현철 이정은 이종성 이현규 이창희 임태진
장지두 장진현 장 진 조영배 조필근 조홍표 최만집
최명희 최용익 홍인식 홍홍기
여집사
강수연 강현희 고진순 박숙민 국현숙 구재경 권명숙
권종순 김갑순 김경연 김경옥 김경희 김계자 김동금
김말순 김명도 김명숙 김미란 김봉순 김갑순 김순남
김순영 김순자 김재명 김연옥 김명희 김정은 김재남
김은호 김충자 김남자 김효영 남상인 남우순 노효영
박정복 문영남 한병민 박경희 박귀진 박옥희 박은숙

제26교구

남집사
강창원 장태주 고현택 고광득 고근하 규재순 김규식
김남근 김명철 김병진 김성수 김진주 김영호 김원봉
김철필 김익수 강경영 강계경 김정길 김준배 김태호
김택진 김철근 김형정 김희태 김희희 남명선 박준배
민조식 박만홍 박명덕 박성권 박순규 박순호 박우현
박문배 박문순 박태진 박태재 박복우 손동기 손은익
손창익 송수열 송인갑 신택일 신민택 황규석 황재배
유종근 윤명범 이라희 이준현 이성근 이영희 이희석
이정기 이현철 이정은 이종성 이현규 이창희 임태진
장지두 장진현 장 진 조영배 조필근 조홍표 최만집
최명희 최용익 홍인식 홍홍기
여집사
강수연 강현희 고진순 박숙민 국현숙 구재경 권명숙
권종순 김갑순 김경연 김경옥 김경희 김계자 김동금
김말순 김명도 김명숙 김미란 김봉순 김갑순 김순남
김순영 김순자 김재명 김연옥 김명희 김정은 김재남
김은호 김충자 김남자 김효영 남상인 남우순 노효영
박정복 문영남 한병민 박경희 박귀진 박옥희 박은숙

강숙희 강혜자 김경순 김숙자 김숙자 김순선 김애순
김오자 김정자 김춘지 김현미 김혜경 김효숙 노정임
라순진 박성자 박애덕 송영복 송인복 안필복 원춘자
유영자 유현숙 유혜순 유은순 이현희 이혜경 이희란
이희순 정병주 조경애 조경임 최복희 최재희 한기희
황정숙

제4교구

강분주 고영남 김성은 김옥자 김천애 김춘희 나춘애
노혜선 노희래 류백숙 박순녀 박영숙 방명자 빈부인
서복순 송미영 송순임 신미란 신인철 신재희 안춘영
오현숙 윤춘자 이정숙 이명옥 이순자 이영희 이윤진
이후자 이희숙 임선자 장명희 정금래 정명선 정순자
조성옥 하민자 한홍래 홍의숙 황정애 황정희

제5교구

강숙희 강정자 김미영 김미경 김명자 김유정 김은실
김현숙 박귀숙 박낙경 서수현 양복희 임학순 이화선
장영실 정순옥 조문숙 조숙래 조숙희 최정자 최희선
홍영일

제6교구

강해영 김복순 김명소 김명숙 김성숙 김철자 김 속
김영락 김옥자 김점남 김경년 김정숙 김정에 김종순
김향숙 김희자 남미현 노정자 독고정란 박종숙 박혜옥
배봉숙 배철만 설진희 송옥희 송표자 유현진 유철애
윤영복 이성자 이승여 이순옥 이순혜 이영자 이정순
전부자 황남숙 조기희 최명주 하숙혜 한덕순 한동열
함철자 허정희

제7교구

강미화 구자옥 김경옥 김계순 김금숙 김명렬 김명순
김숙자 김점미 김명숙 김윤옥 김은영 김희순 김현순
김춘자 나미열 박명옥 문금걸 박경혜 박명숙 박명애
박현선 박희숙 서광자 손혜경 송경숙 신복순 신현복
심기남 안윤순 원영주 윤상정 이강숙 이경옥 이담희
이무현 이현숙 이삼순 이숙우 이순정 이정란 이혜경
임효정 장덕남 장영숙 장용숙 전금주 조국심 조복연
조성심 주삼희 전정숙 최순경 최현자 함은숙 홍경숙
홍희자 황수연

제8교구

권부순 김경희 김귀남 김명선 김명숙 김미란 김승아
김윤희 김인걸 민성혜 박향혜 박한순 박명숙 박민정
백문일 변서자 서순희 손은숙 손향순 신서운 신은수
안옥봉 안창자 윤복근 이상순 이순애 이연재 이영미
이영자 이옥현 이지영 이지현 이자임 정영애 조철자
최명현 최미선 최창실 한길자 홍진화

제9교구

강소영 강순애 권영실 김금애 김선일 김선희 김순규
김명애 김명숙 김은숙 김정은 김혜숙 김희분 박경숙
박선미 박용미 송석자 송숙희 송순호 심복남 안병순
이성순 이경순 이선애 이순덕 정영애 정어금 조은경

제10교구

권순옥 김애실 김연옥 김월년 김종순 김 철 김진수
김혜자 문정순 신정자 신순애 안동화 윤선자 이미숙
이복자 이정숙 장정숙 정옥련 지선미 최경화

제11교구

권순희 금옥연 김경숙 김재남 김혜경 박경애 박덕순
박명자 서정희 서미미 손정애 신화분 심보실 양혜경
유봉남 이명숙 이순희 이희순 임남순 임영애 정택순
추정애 한성희 홍현숙 황차환

제12교구

강은숙 강혜숙 황정애 김금자 김금자 김길자 김명숙
김상화 김소희 김수정 김원내 김윤실 김정은 김효정
김희숙 노기자 박보경 박인실 박정애 박종남 서은자
서정숙 안윤옥 옥순환 유현희 이강애 이수자 이순영
이영자 이화자 이경희 이진숙 이주자 정지선 주미경
주혜연 최경애 최선복 최수원 최순애 최정숙 하소영
하복순 황복순 황종기

제3교구

권옥자 권남순 권복순 김현기 김정선 김혜경 남상숙
박관순 박순원 박정실 박혜숙 박명자 백문희 백선애
사정숙 서정애 서용순 송만자 오현희 이경미 이남근
이명숙 이명희 이명희 이명애 임은정 정명숙 정순옥
최옥희 황호선

제14교구

고옥석 권애린 김철화 김경희 김애진 김명숙 안명숙
이동은 이일성 이정은 임윤자 정만옥 정현애 조은주
권애은 최명자 최주자 한명주 홍영자

제15교구

고미자 김원희 김순옥 김순희 김원희 김명자 김명자
김종란 김현숙 김현희 김혜숙 김희영 띠기자 명선미
백애수 정만도 신진자 심민희 최필배 유선옥 문재운

이남숙 이선희 이영경 이영순 이용순 이정숙 장금달
정영희 정운순 정희자 조미순 조순호 최근준 최명희
추순옥 한은주 황명숙

제16교구
강 순 강경희 김명자 김수남 김영혜 김은숙 김혜동
김효선 김희순 남경수 노윤영 류창화 박미향 박정희
박정순 박필연 방연옥 백복숙 안교훈 안모순 오명준
원숙희 윤미자 윤선희 윤혜오 이경표 이길영 이명순
이선영 이양희 이영자 이영현 이옥주 이인자
이정연 이정화 이지영 이현옥 이현자 임현숙 장금자
장인숙 장재래 정명자 정연경 정은경 정은심 정정자
조장수 조정희 최 란 최선명 최숙자 최영춘 최정자
한혜숙 허정애 황 자

제17교구
강순옥 강정숙 광경숙 광노숙 권연숙 김윤주 김경희
김묘은 김복덕 김성순 김순화 김옥경 김정선 김혜순
류호성 모숙현 박복실 박화자 서요현 손기옥 손은경
송정복 신영은 안미옥 이진순 이영숙 이영순 임봉숙
장혜경 장부경 정옥임 정옥현 정은님 정점돌 조균실
차영선 최정자 최태자 황순란

제18교구
강순숙 강영옥 고은주 김규식 김선진 김성희 김숙현
김영희 김용열 김은주 김정옥 김경희 김현실 김형숙
김희자 문성애 박영익 박영자 박정혜 박화순 박희자
성경옥 송성원 송행자 심혜옥 안순옥 엄순애 오순영
오혜숙 유현숙 유현순 이가옥 이규자 이동연 이명애
이봉태 이선옥 이순희 이영숙 이윤희 이정희 이해주
정순진 조복순 최은영 최종란 최찬규

제19교구
강 옥 김경순 김공예 김명숙 김명희 김성숙 김소예
김송화 김수자 김승희 김현실 남금순 문 희 박부선
박 청 송영현 신동옥 신선희 안경자 오승민 유호열
이경옥 이경임 이경자 이경호 이미영 이병현 이숙진
이영순 이인규 이현숙 임영선 정순경 정희자 조영주
조정희 최종란 황윤숙

제20교구
김경남 김미경 김미자 김순애 김애란 김행자 김혜정
마현숙 박영미 서영숙 석태임 소성에 심인순 심효구
안수정 양옥주 양은주 윤옥화 원필숙 이마나 이선희
이옥자 이정옥 이향숙 이현주 임진숙 정기선 정미숙
정숙현 정인자 정미순 조옥남 조윤희 조윤희 최선자
최현순 한금란 한월순 함미경

제21교구
권해진 김미애 김세향 김수자 김순애 김순자 김영자
김옥순 김옥자 김은영 김형숙 김효순 박경혜 배영숙
송묘숙 안정숙 오은경 오정택 이명숙 이미영 이미지
이선희 이영주 이은숙 이인숙 이정숙 이정희 이해영
정미랑 조은영 최은연 하옥봉 한계태 한선희

제22교구
김기순 김순옥 김운자 김현옥 노봉순 라업봉 박재귀
변병숙 안정현 오희수 유은경 이명희 이민순 이주연
장순자 조영근 조춘자 황옥남 황의숙

제23교구
강선희 김영은 김혜원 신순희 신현주 안신자 용덕순
유은희 유진옥 이경순 이득자 이교화 이혜숙 이우희
이향선 임정희 장지호 정기자 정정자 최명숙 최은영
황영희

예배위원회

· 위원장/김방진, 지도/윤용규, 서기/김여순
부지도/최순복, 임태주

· 예배부장/안익태
1부차장/전용해, 2부차장/전홍열
3부차장/김인관, 4부차장/한경선
찬양차장/최기홍, 수요1부차장/오인근
수요2부차장/권 철, 금요차장/이인영

· 성례부장/박인건
성례차장/이인상, 성찬차장/백죽실

· 안내부장/김여순
총무/최윤덕, 차장/김구형, 왕진숙
· 영어부장/이병학
차장/이부성, 김 순

선교위원회

· 위원장/하대선, 지 도/김양훈

서기/송환창 회계/박용삼
· 남아시아 선교국장/송환창
· 북아시아 선교국장/하대선
· 미주 선교국장/이병학
· 유럽 선교국장/박용삼
· 아프리카 선교국장/최석현
· 북한 선교국장/최삼규

실행위원
강 순 강봉수 강신순 강철형 공창호 권명옥 금호순
김경순 김복희 김상순 김석순 김석옥 김소순 김시주
김연근 김영아 김영희 김준자 김진만 김춘권 김형곤
라영실 박길너 박동업 박명업 박상준 박영숙 박영업
박옥순 박옥식 박종규 박종규 반영숙 백봉희 백은경
백인숙 백죽실 백현순 석정자 안동현 안윤진 양창희
유정수 윤재춘 이도영 이동명 이미재 이석영 이석정
이영숙 이영숙 이정자 이형숙 임무천 임봉옥 임옥순
임옥환 장영옥 전명옥 전순자 장봉조 장태두 조 숙
조동숙 조미경 조혜순 주순희 최명환 최미정 최봉순
최태옥 필기복 한경숙 한영숙 한영숙 허 오 홍경숙

봉사위원회

· 위원장/마성락
· 차량관리 부장/이하영
차장/허명호, 김규중
부원/
강석화 강신호 강희창 고경중 공석생 권용동 김규중
김낙홍 김동삼 김동안 김봉중 김선규 김수진 김영국
김영길 김영연 김원호 김원호 김은석 김일교 김종규
김종민 김종성 박영섭 박원화 박창식 박한규 배호남
변해수 손기현 손영섭 손창열 오병두 윤병조 윤석규
윤선한 이교영 이구연 이만석 이병진 이성실 이승구
이영일 이윤열 이우성 이인수 이창우 이진우 이창권
임세규 장영창 장영환 장동우 정무열 정영길 정태두
주명수 차기풍 최정남 최진성 추병창 한종구 한종현
허명호 허판영 홍금호 황현철

집사회

회장/임무천, 부회장/최명환

권사회

회장/장영옥
제1지회장/남수현, 제2지회장/박영업
제3지회장/윤수원, 제4지회장/박갑래
서기/박옥식, 회계/김 순

찬양위원회

· 위원장/김은호, 지도/현상민

· 가브리엘찬양대(주일 1부예배)
대장/이관섭, 부대장/이종섭
지휘/조신옥, 반 주/백금옥
소프라노/
강민영 강영희 권미선 김경숙 김광연 김명숙 김미자
김승희 김선영 남수연 박영진 방희정 서미라 서정경
서정옥 석정자 손성옥 송문영 송세진 송연자 안옥자
안준진 안현희 오윤숙 이명은 이명희 이문자 이미리
이미연 이순호 이은희 이정림 이장미 이정숙 임정숙
임정진 정부희 정옥남 조수연 최경숙 최근준 최수진
최영실 최영희 최윤정 최희승 피순복 홍명희

엘 토/
강석주 강윤재 광기영 권수정 김명숙 김미선 김선영
김성희 김순중 김신자 김영은 김옥남 김옥영 김은아
김은양 김혜영 노명순 노은옥 박정순 박진의 박혜순
손근영 송영진 신정숙 신준희 연화숙 오영숙 오영혜
윤춘심 이경희 이설희 이수현 이숙희 이순희 이연화
이은정 이지연 이희경 임광희 임선에 장춘애 정길자
정현자 정희자 조미순 최귀순 한수미 홍명순 홍성실
홍원희 홍종자
테 너/
권 일 권병철 권석태 김기완 김영덕 김홍배 문요한
박상대 박재의 우종용 윤석빈 이광일 이시형 이영준
이종윤 이진수 이태형 임창식 장상원 장광택 조성수
진경분 최동규 최승민 황진경
베이스/
강신근 강창근 구지승 김낙훈 김상열 김성길 김학도
문광석 민병수 박병근 박석두 박종규 백정선 손창열
신진길 양은식 오용진 유국현 이윤복 이웅석 이종섭
이지수 이지형 이창우 장영주 장래부 정선현 정연택
정준현 정혁구 조성훈 최홍구 황원성
· 임마누엘찬양대(주일 2부예배)

대장/남선우, 부대장/이계인
지휘/최덕식, 반 주/김윤경
소프라노/
강길례 강순옥 공수진 광정은 김보경 김선영 김예숙
김은숙 김혜영 김효순 김희선 김희숙 명성희 문영미
박미나 박미애 박선아 박성희 박은주 박은진 박정수
박정수 박지연 박현주 박혜성 박혜영 박희성 배정희
서향숙 손미자 송미주 신승은 안복남 양시원 엄선자
엄소연 오세희 오은경 오정혜 유해연 윤남순 윤미영
윤지영 윤혜실 이수경 이신남 이양현 이연실 이요목
이우경 이윤화 이정은 이주은 이현진 임선하 임효선
장득경 장명순 장성순 장순양 정경숙 정미란 정미숙
정은숙 정효숙 조현숙 진성남 채명혜 최금란 최유정
최정원 최정자 최작한 추명희 한금자 한선형 한현정
함유선 허수연 허수영 허신희 홍성미 황순란

엘 토/
강수정 강혜영 김경희 김규복 김나래 김란영 김미경
김선영 김영순 김영희 김은미 김은숙B 김장아B
김현정 김현진 김현희 김혜영 노효영 문희A 문희B
박상희 박선희 박준희 박형숙 방미숙 배지은 손영현
송미경 송영란 안경화 안명진 안은애 양시정 오동원
오은주 오자경 유인애 유진희 윤정선 윤자선 이명하
이성자 이은정 이지영 이혜진 장수진 장연희 전지현
전진실 정명실 정미란 정원주 정윤지 정효륜 조영주
지희미 최정현 추수미 하은실 하진희 한 나 한지연
허애린 홍은영 황정선 황정희

테 너/
권수일 김기용 김낙교 김도형 김봉규 김상진 김영섭
김영익 김윤성 김장호 김훈식 김희석 나승은 노영광
박명호 박용문 박철홍 성문형 신인성 심정태 오영철
오재걸 오정성 이강일 이남철 이도우 이방훈 이수형
이재옥 이재옥 이정구 이형준 정규호 천성민 최만호
하성두

베이스/
김국찬 김민준 김영일 김용현 김일용 김진홍 김태석
김태준 김형일 김희석 남기석 남전우 남승락 마세열
박경현 박경환 박완용 박용진 신상운 안광영 안홍영
엄은식 유기중 윤인준 이계인 이권수 이규원 이민재
이석재 이성원 이수길 이수기 이종현 전이배 장상수
정영덕 조시배 조인성 조준환 천상현 최승순 최승철
최요섭 홍성민

· 할렐루야찬양대(주일 3부예배)
대장/이종석, 부대장/정홍식
지휘/김영준, 반 주/김신영
소프라노/
권경희 권기영 권미숙 김경임 김명자 김성숙 김송자
김옥순 김은경 김인숙 김정자 김종희 김송자 김현경
민오미 박미서 박민정 박수경 박수인 박정용 방정현
백광자 서영남 송선옥 송연임 오명자 오현정 오희숙
원춘자 유경아 유기림 유은희 이미숙 이민숙 이복희
이성실 이순희 이영자 이은혜 이혜숙 임수연 임순록
임정숙 전성자 정명애 정은숙 조경민 최미희 최선명
최수희 최영선 최영옥 표복자 하해인 한옥화 허정애
홍애경 황미애

엘 토/
강정희 공인화 광숙단 금호순 김경애 김광혜 김세희
김송화 김순인 김연향 김옥희 김은주 김종녀 김지은
김현진 김혜숙 마미화 박경연 박영순 박미순 박지현
박지혜 방지영 변문정 서양숙 손경희 손양숙 손정애
신명주 안종순 오계순 오세은 오을순 유성희 유혜자
윤미경 이경숙 이경애 이복순 이연순 이영옥 이영자
이인순 이정란 이지영 임성남 장선복 장신자 잔은실
전화숙 정미애 정미원 장상순 정은숙 정옥현 정은혜
정재영 정효순 조영순 차봉순 최수경 최인상 최정현
하순영 함미경 홍의숙 홍진주 황광옥 황은선

테 너/
김광은 김낙원 김경조 박영대 손재호 안신옥 유신오
윤주현 이종서 이진국 이형업 이 준 이승국 이인영
임연수 전명수 정성교 정학주 조은애 최대원 최동훈
최원일 최정렬 표성배

베이스/
고범석 구창희 권영주 김 현 김대인 김병수 김영휘
김재범 김종식 김종필 김창호 김태호 김현식 김형곤
박광래 박수인 박우현 박종진 박진완 빈윤형 서한승
선명환 손정익 신현호 안동현 이동우 이명국 이완희
이재보 이주홍 이태현 이형숙 이희재 임광수 전인걸
전정규 정위식 조남진 조상훈 조은원 최영하 최우근
최창하 표왕열

· 아멘찬양대(주일4부예배)
대장/이 훈, 부대장/전홍열
지휘/최광덕, 반 주/송영미
소프라노/
강동화 광도영 김경자 김국영 김명선 김명순 김미자
김성단 김성록 김성옥 김성자 김명민 김명숙 김명옥
김혜경 김혜선 류명희 박경애 박성순 박혜준 백순자
서화자 안금자 양선자 오명주 왕인숙 우영희 원용숙
유정자 윤기희 윤영미 이규숙 이근덕 이명희 이복희
이순옥 이영숙 이영순 이현숙 이희숙 임학선 장순희
장옥순 전옥순 전옥순 정명숙 정은옥 정옥영 정정숙

조유자 조인혜 조지은 최경순 최경희 최영란 최예순
최종분 한 복 현계식 홍순순 황경자

엘 토/
강영옥 고금신 김귀자 김순옥 김순은 김아진 김영기
김영자 김경순A 김경순B 김경순C인영란 박미정 박부선
박선미 박윤식 박정숙 방남희 방소애 백숙자 변정자
석태임 심성탁 엄정자 유현자 윤정미 이경순 이명자
이상옥 이숙현 이정숙 임선에 장순태 장정연 전경자
전유자 장금선 정숙자 정윤선 조은영 채영애 최수자
최양숙 한애현 홍성순

테 너/
강태우 김영훈 김철환 류기명 박상현 서대식 송영상
유현동 이봉주 이영민 이준식 장상길 조규호 최광선
홍영표

베이스/
공병식 김경환 김성국 김성태 김신국 김영선 김용삼
김인숙 김형덕 박병선 석영자 양승환 이보신 이부일
임나준 전종익 전홍렬 정세용 조규만 조필근 조형수
채종성 최상기 최영창 한운석

· 호산나찬양대(수요1부예배)
대장/신일순, 부대장/양선자
지휘/송숙자, 반 주/채은실

소프라노/
강동화 고윤희 광영자 김경숙 김동래 김미자 김복임
김봉숙 김성옥 김연미 김연수 김영숙 김옥순 김재숙
김정자 김혜정 남경자 남경자 노계은 박경자 박영희
박인자 반연자 방신자 방희정 백경옥 백영희 백준자
변순복 서영남 서인희 서화자 손성옥 송은주 신영자
신일순 심인주 안경덕 안애환 안정희 양선자 양선자
어수덕 유정자 유효순 윤남순 윤여진 이경효 이규숙
이명자 이순일 이순희 이청수 이현숙 이혜심 이화자
임동개 장옥순 전성실 전옥미 전춘옥 정길자 정정자
장찬실 조미자 조미자 최경순 최경순 최귀순 최숙경
한숙원 허인순 현계식

메조 소프라노/
강숙희 김경숙 김순은 김옥남 김경숙 김정은 김정자
김지현 노정자 도성희 문경희 문선옥 민병란 박명엽
박복숙 박순옥 백숙자 백성옥 설복연 손복희 손숙자
손홍숙 엄숙현 오경희 원순희 유인순 윤경중 이미지
이영숙 임선에 장희수 전행자 정운순 조은신 차혜숙
최봉숙 최창현 현경남 황순주

엘 토 /
구영희 김금숙 김성도 김순애 김명자 김인자 김춘지
남수현 박나용 방남희 백영자 변정자 신정순 안상숙
안소현 안정자 양영숙 이강혜 이수자 이순민 이영영
이영희 이현남 이형주 이혜영 임영숙 장명숙 장정훈
전선덕 정민자 정윤원 한영숙

· 실로암찬양대(수요2부예배)
대장/차진득, 부대장/박성명
지휘/조신옥, 반 주/임효선

소프라노/
권미숙 권현숙 김경희 김선영 김송자 김송자 김희숙
노경숙 문영미 박경희 박민정 안설희 양난정 오미자
오은영 오후연 유순규 윤혜실 윤혜연 이명숙 이복희
이승순 이정에 이정현 이주은 이지민 이혜경 임순록
정경숙 정옥영 정은희 조인혜 최경희 최영희 최유정
최작한 한현정

엘 토/
강은미 강은선 강은혜 강정희 고지현 김경아 김세희
김윤정 김경숙 김혜영 나영실 박선미 박연숙 박형주
박혜정 서해숙 손근영 오자경 유성희 이명자 이숙희
장민정 지선덕 하순영 현은주 홍정화

테 너/
김산일 김정호 안신옥 이동우 이상기 이재옥 이정구
이정환 임 명 정인선 최광선

베이스/
김성국 김창호 김형곤 박성근 박성명 박성환 박완용
박용삼 윤정훈 이 훈 이규원 이승계 이재현 전정규
정영덕 차진득 표왕열 홍진영

· 시온찬양대(영어예배)
대장/박용삼, 부대장/손 철
지휘/이수철, 반 주/조희영

소프라노/
권현숙 김명아 노경숙 박찬미 송양원 송영현 이금주
이소현 정혜영 조종선 최경아

엘 토/
S. RINH ARDT 김미정 김민정 김은주 나정연 박
선희 송유진 오선희 윤영미 이영실 정지연 최윤미

테 너 /
R. H. O'CONNELL 김대현 김윤식 윤성기 정인선
채홍표 최도준

베이스/
김기우 김익진 김정형 김지형 김훈상 박수현 박형근
손건국 엄현일 정찬홍 허광만

· 핸드벨파이어
대장/정정자, 부대장/김승옥
지휘/민배라

대원
권미진 권은아 김광미 김미리 김보라 김성연 김숙영 김유경 김현림 남지연 박은기 박은영 백해조 변영현 봉수연 봉혜령 손신애손에스더손은혜 송정근 신혜령 안은미 안지영 양자영 오지혜 유현정 윤경미 윤성혜 이광목 이누리 이보람 이재만 이지은 이태호 임희연 전계범 전진경 전혜상 정성현 정소은 정지영 정철호 정혜미 조은비 조혜영 최연순 최영주 최은정 한종웅 한지연 홍미정

·충현오케스트라
대장/이종석, 지휘/남궁조
제1바이올린/가르치 김대곤 김영임 김유정 김진미 박경희 박민숙 유지연 장연희 황윤희
제2바이올린/강영주 김봉화 김지형 박재숙 박정아 박주연 이애스더 최영옥
비올라/김성희 우현희 이수민 신민경 박정민 발렌틴 쉐 로/조은경 박민신 이경임 최정아 오경남 김지현 콘트라베이스/이신실
클라리넷/김돈규 김진아 최승준 최효일
플루트/강일순 고도인 동현정
오보에/이종업 박윤진 유문수
바순/김성훈 이현주
트럼펫/임정미 허윤영
호른/김혜경 노승희 임지연
트럼본/김영미 이상진 최연희
튜바/서영철
팀파니/조선정

·크로마하프 만도린 연주단
대장/홍태순 부대장/이정자 지휘/이정현

·크로마 하프/소프라노/
강신숙 강신순 구자남 김경순 김국자 김부영 김숙자 김영옥 김영화 김옥순 박희숙 신귀옥 신영희 신주영 이민숙 이연순 전옥순 정순경 정영래 정정자 황진순
엘트/
박경희1 박경희2 성지현 심옥섭 오광순 이미란 이영희 이정자 이정현 최서훈 한영숙

·만도린 소프라노/
곽영자 권명희 노소옥 반연숙 양순자 유재옥 윤춘심 이국표 이승연 이연순 이영숙 이영순 인장옥 전경금 한수미
엘트/
김신자 이성희 정명실 홍명순

교육위원회

·영아부
부장/김재균, 지도/정연희, 부감/권명옥, 이남숙 남교사/
김상철 김윤희 문원준 윤희택 이명규 이세환
여교사/
강소영 고현숙 김경옥 김국자 김미애 김미정 김순이 김순자 김영란 김영숙 김옥희 김현화 남은우 노은혜 문민순 박명란 박미향 박효순 백근순 손유비 송혜경 신은자 오정남 유미향 유현자 이규숙 이명숙 이명희 이선희 이애영 이은주 이혜재 이홍자 이희순 장명자 장정순 정경옥 정금진 정애화 정진녀 조미자 최금실 최수자 한희경 홍영일

·유치부
부장/박인세, 지도/김정자, 부감/이동명, 오화자 남교사/
강봉기 김용대 방기영 이창희 이호식 장금진 정두연 조승철 최정환 홍성옥
여교사/
강숙연 강영대 강영옥 장영옥 김윤주 김경성 김철옥 김득연 김병희 김복자 김성희 김수현 김영기 김영미 김명아 김혜순 김은경 김은희 김경숙 김경화 김정화 김희영 노은영 노재희 문현옥 민병옥 박복선 박지선 서명숙 손주현 한명숙 오정현 유주옥 윤선주 윤화선 어경호 어혜은 이매리 이숙현 이순복 이순옥 이장옥 이종옥 이진영 이혜숙 임남향 임순진 임현진 전금수 전순희 정금진 정금자 조미숙 조복연 조숙임 조영미 조혜옥 차아연 최은혜 홍영희

·초등 1부
부장/정광호, 지도/김필수, 부감/진홍용, 이종영 남교사/
강예모 고문길 김경남 김석재 박태근 오해섭 이상일 홍채순
여교사/
강순자 박숙희 권혜옥 김경희 김계순 김금순 김매자

김보옥 김성록 김수진 김영미 김영화 김옥자 김정자 남영덕 박은주 소정자 손경순 송영복 신정순 신정순 안강옥 양숙자 엄혜옥 오미라 유요종 윤숙희 이명자 이명재 이상민 이성옥 이영숙 이은희 이재옥 이창숙 임미자 정문지 주영혜 최영순 최영옥

·초등 2부
부장/김광남, 지도/정갑신, 부감/한송규, 백영기 남교사/
김병권 김승곤 김열환 남용순 손재홍 송병렬 양병진 오경록 이산영 이수호 이승득 이흥기 정중수 조규하
여교사/
강남진 김금순 김성희 김순련 김영숙 김영혜 김혜선 김현실 김혜동 문경숙 박애희 박옥자 성향록 송정순 신귀옥 신성자 양옥자 유기순 윤정숙 이경숙 이영희 이은숙 이현영 이훈숙 임경숙 임복래 장의순 정은영 조근실 조향순 최계순 최경남 하두연 하주연 함미자 홍현기

·초등 3부
부장/김여순, 지도/이인우, 부감/고병국, 김경희 남교사/
김성태 김승기 문정호 박지환 신성용 양국석 오순도 이상일 이상희 이영희 이인범 임병준 임채석 지종세 진양을 최경남 최현제 한병규 함철주 황인주 황태진
여교사/
고경숙 박병순 김세환 김승희 김신영 김정연 김지희 함윤자 마현미 문현정 박점숙 박춘우 박현혜 변경심 서종남 신우영진 신영희 신재금 심미정 양순남 이미화 이상금 이순임 이영복 이영숙 이원희 이인수 이인숙 이천애 장민화 장인자

·초등 4부
부장/윤광일, 지도/장상기, 부감/김환기, 김순실 남교사/
박영기 박영식 박준배 설병동 양승길 이창영 장지환 정계용 조영구 최동삼 허만현
여교사/
강운재 고진순 김규정 김말자 김명주 김미숙 김영옥 김유순 김은자 김혜정 김희숙 노화선 박정숙 신경순 신주영 안금자 오광순 오영선 오은영 원상희 윤정희 이경희 이미숙 이복희 이승옥 이영수 이영숙 이영순 이정현 이정희 임정숙 정경애 조순남 조정란 진경숙 최은희 한명자 한복자 한석연 한성희 황정갑

·초등 5부
부장/윤성철, 지도/성봉환, 부감/김춘권, 김정자 남교사/
강준상 권백용 김재운 문희숙 송영준 신태홍 양기수 양병규 이계학 이병두 이석목 이인용 이재학 이재학 이정태 이정태 이준진 임덕일 장인희 전삼진 정 진 장왕원 편무산 한종남 홍관영 홍택성 황재현
여교사/
곽도영 김성자 김승옥 김재순 김현미 김연순 박복숙 박양덕 박현정 신옥자 안명희 안지영 우정길 윤영아 이순애 임광희 임혜경 강희숙 전길복 전영희 전진영 전진영 전하숙 정미순 정원남 정임순 채명혜 최영옥 한재진 한주현

·초등 6부
부장/이창호, 지도/한용관, 부감/장주석, 백영희 남교사/
권영훈 김기태 김기현 김명철 김영환 김용산 김원규 김재현 김중태 김향진 남중호 박광식 박종은 백남재 서지석 성백우 안지홍 양현원 오철민 이부일 이영민 임대희 장재복 지성광 진종일 최광선 최대성
여교사/
강영희 강은선 김경희 김숙희 김유희 김인숙 독고정란 박은숙 서순직 석귀순 윤인숙 윤인숙 이계현 이명애 이애란 이은경 이은하 이현정 임선영 장원옥 장혜진 정미숙 정경애 조은옥 차재순 최수미 허국현 허옥남

·중등 1부
부장/최무관, 지도/김희수, 부감/박미란, 조옥환 남교사/
김경현 김사주 김명길 김명환 김창구 김종홍 김철남 박홍규 최광득 성백전 송건국 안홍모 윤여별 이철근 이영표 이종원 정원근 정은식 정한준 조은실 지동준 최종순 한광조
여교사/
강영숙 권혜정 김경아 김명숙 김복덕 김복희 김선재 김현식 김연옥 김영숙 김은영 김희정 류영숙 박양덕 백광희 성명선 손순자 송남아 신정순 윤호진 이매리 이승민 이애숙 이은아 이연진 임선애 장성실 장영선 전은실 정경희 조옥자 지연숙 최영순 최종분 황선혜

·중등 2부
부장/조민재, 지도/이종대, 부감/김영은, 유호순 남교사/
강남석 강태년 김기철 김민호 김병권 김영주 김우준 김운환 김일생 김창국 김창현 김향권 류종호 문경환

박길배 박태규 백 중 백운홍 송두섭 신광철 신용한 이병석 이상해 장석두 장현덕 조준민 최남희 최진성 한승일
여교사/
강민영 권수인 권혜연 김경숙 김성녀 김수영 김안주 김양자 김영자 김윤정 김정임 노정숙 문정자 박정숙 박현순 박혜정 변평수 서은숙 송영진 송진경 양순옥 오순자 유명숙 이경옥 이홍숙 임경순 정은희 정정순 주윤숙 최현자 현경남

·중등 3부
부장/김종구, 지도/정광옥, 부감/김단용, 최 규 남교사/
고승관 김성수 김용훈 김운환 김태진 김태홍 류동호 박용기 박원영 박판수 손종원 송원석 신민석 오재일 오기찬 이동성 이만영 이상복 이영준 이영준 이영환 이인광 이정진 이종환 이혜철 이호일 정진영 정혁구 조성태 최경하 허용만
여교사/
고임순 김부영 김영숙 김은숙 김은주 김의정 노혜경 동지현 박수진 박양자 심진희 옥 설 유재춘 이경은 이금효 이명희 이상희 이승순 이정애 전준희 정희경 조순림 함순리

·고등부
부장/박영식, 지도/장봉생, 부감/이형수, 조혜순 남교사/
강경훈 강철형 강태영 구재환 권혁진 김광호 김교동 김낙관 김남식 김대용 김동업 김동옥 김상열 김성동 김승배 김형달 김인철 김정필 나길수 문영규 문윤수 민재환 박대철 박동업 박용호 박종을 백의현 백재현 송석근 송인섭 신재성 신주홍 신철우 양진호 임복섭 유현동 윤석민 윤혜균 이광우 이무열 이승계 이상선 이요섭 이종훈 이지환 이홍우 진정구 정수일 정수일 조영호 조웅진 최대주 최동욱 추상현 한경수 홍원석
여교사/
강은미 권도원 김복순 김성주 김수경 김영현 김용숙 김희원 마이경 문경희 박은주 박종화 박준원 성명희 안현숙 여신자 오순희 유길자 이득해 이부영 이승희 이애나 이화표 장남희 장동숙 장순복 장희수 전부자 정영일 정희경 최정길 홍순애 홍정화

·대학부
부장/최성현, 지도/이병자, 부감/안석현, 엄숙현 남교사/
권영진 김재호 김종원 김한원 노영환 박병기 안석현 안세현 장인걸
여교사/
유순원 이윤복

·청년 1부
부장/이태영, 지도/현상민, 부감/임무현, 유순철 남교사/
이찬옥 정태두 이철실 진승환 장홍석
여교사/
최태옥 리영실 한금자

·청년 2부
부장/임필성, 지도/관정수, 부감/양기재, 이경호 남교사/
김광근 박규연 박성철 백운홍 송효중 이명종 이명종 이원영 이종석 장철환 지규성
여교사/
강길래 강순희 고순희 나승은 남정애 박정란 박정수 윤병인 임경순 조복연 조숙진 홍영숙 홍화숙

·장년 1부
부장/손경수, 지도/윤삼중, 부감/황희만, 김춘지 남교사/
김연근 김영록 박범익 박정태 박호용 소재철 안병호 이석영 이영일 장영환 전계식 조종광 한만교 하해균 황현철
여교사/
권완순 김경순 김숙자 김숙희 김용철 김재순 박정란 박은숙 연옥희 서명남 안순자 안태숙 양명자 유효순 윤정식 이경자 이명자 이순자 마은옥 임경옥 정경혜 진화자 채해선 최영덕 최영애 최재영 한숙민 한정희

·장년 2부
부장/김계명, 지도/윤영탁, 부감/장봉수, 박효지 남교사/
강진태 금요탁 김광근 김용석 박문태 박상준 박상철 박종옥 박종태 배춘희 안노숙 안성열 엄기정 오인근 이규현 이만기 이명희 이상용 이태석 정봉순 전용래 정영래 정영태 정찬국 조철주 최차용 최환식 한준원
여교사/
강경란 김경순 김복임 김성도 김숙자 김옥희 김경란 김현옥 남수현 민병인 민정현 민성옥 신소자 신일순 안소현 안정희 유영희 윤옥자 이명균 이미혜 여애자 이원희 이윤영 이인숙 이정은 임근에 권옥희 정경자 조금자 조복자 조연숙 차정숙 최미정 최봉수 한순희

·장년 3부
부장/정은석, 지도/정규남, 부감/황영일, 이외복 남교사/
김경수 김민채 김세홍 김진섭 박노봉 박노택 박노택 양삼주 오석부 이갑재 이동수 이병영 정재복
여교사/
김동래 김석순 김순이 김영숙 김영애 김용순 김점순 김필여 김현자 김효정 나선에 변순복 서양순 송정배 송태영 신정호 안옥실 유영자 윤정덕 이경순 이미애 이복을 이순근 이연순 이춘일 이추진 임순철 장정숙 전순임 전혜선 정순자 정정자 조계진 조귀남 조동숙 조종원 조향숙 조희순 지숙원 최봉순 최선옥 최혜영 필기복 한동숙 한순민 한영숙

·소망부
부장/김천재, 지도/최인근, 부지도/김정순 부감/양종섭, 이명자 남교사/
고종복 권용동 김수연 김인란 김점석 문광석 박두영 박창근 오동환 유영식 윤택성 이구연 이윤현 이정훈 정유채 조홍진 최용길 추병창 한일연 허형철
여교사/
강순자 고남균 고정일 김경순 김명자 김상인 김숙기 김명아 김준자 김희옥 박갑혜 박숙경 송형철 신영순 안정자 여중여 유금순 유병순 유순녀 윤재춘 이상덕 이순자 이영영 이인경 이영숙 이정애 이종숙 이형숙 임옥환 임원일 장선자 정명실 정문태 정운순 조영숙 조영혜 최경복 최태목 함순리

·새기점부
부장/박승준, 지도/박정규, 부감/박덕양, 남교사/
강주석 강태구 고건일 김성호 이광국 이성남 이정관
여교사/
강효임 김장남 김장선 박선숙 박일심 서금자 정미선 윤 정 이미애 이현정 임희순 주순희

·서랑부
부장/송환창, 지도/임성환, 부감/이병옥, 송홍숙 남교사/
강희창 고팡국 구본재 김복하 김정래 김종실 김창호 김창호 김준원 남명선 박경열 박순규 손영호 송승봉 윤상재 이아름 이인균 이재향 전성옥 정영민 조종환 전창철 한형식 홍영표 황병호
여교사/
강수정 고기순 원시은 김봉재 김경숙 김공애 김순배 김순희 김윤희 나윤진 노정자 라종애 문금선 박정숙 박희경 방유리 봉수연 서지선 송미경 송숙자 안정숙 안정하 안순영 양태자 양정경 임선자 오세분 오후연 우정자 윤남희 윤영자 이명숙 이명하 이명희 이소담 이수희 이영자 이은정 이정미 이정자 이종은 이현숙 이혜정 임정연 임창순 정명숙 전미숙 전행자 전현선 정은숙 정호진 제민정 조강자 조경자 조순희 조애란 조우숙 최선자 최정순 하현주 한성수 한정은 한화선 홍승희

·에비다부
부장/문홍구, 지도/김성운, 부지도/이준우 부감/이지철, 박윤식 남교사/
김상화 김용환 김평호 박규철 박민기 배병호 손기현 신성수 신창현 오규원 유성열 유인근 이운범 이종희 조재경 최형호 함용석 허 오 홍기준
여교사/
강현주 김동숙 김영연 김옥순 김경미 김현순 김효연 노효영 박부미 박순자 박춘자 배종애 서은숙 서인성 신미숙 신혜숙 양은옥 오은희 이재옥 이용희 임영숙 정용본 정정훈 정영란 정영미 주영희 최정옥

·탁아부
부장/강모용, 부감/최윤덕, 민순애 남교사/
김민수 백종석 조종덕
여교사/
강경란 강석란 강설자 강영애 강영자 강옥희 강재열 강정일 고명철 공정자 권필순 김경희 김발선 김발수 김명숙 김병희 김순자 김숙자 김영옥 김옥을 김의숙 김재순 김철민 김정은 김정화 김중순 김순식 김한현 김혜은 김희미 김희선 김희옥 나영희 나정은 노 안 문선순 박갑래 박귀순 박명숙 박미은 박복동 박선순 박옥순 박은숙 박혜경 배귀녀 박옥심 박은실 서택순 서현실 정순순 소복림 손영주 손옥희 송정옥 송순임 신금순 신명자 안숙자 안정자 안현희 양명희 오수옥 유남순 유옥련 유옥자 윤옥중 이경분 이강자 이귀례 이기에 이달순 이명은 이명자 이은남 이순자 이연순 이영자 이옥순 이윤진 이현은 이현주 임도화 임복옥 임선영 임영자 장귀녀 장정숙 장권옥 장현순 권옥이 진정자 진정희 정순애 정영애 정주환 정진순 조성옥 조숙호 차명선 채귀순 천현애 최순자 최애숙 최영숙

최예순 최옥현 최유정 최현자 표복심 하일영 하일상
홍갑순 홍성실 홍양례 홍영숙 환순정 황수정

· 영어교육부
부장/이병학, 지도/노봉린, 부지도/김철성
부감/이부성, 김 순
남교사 /
Rev. JOHN WERNER 김용준 김정찬 장충균
정홍관 조경백
여교사 /
MRS. J. O'CONNELL, MRS. A. LAVINA,
MRS. ALICE, MRS. J. S. KIM, 이경애 이은애
김정순 이유헌 성명희 배복자 유효종

새가족위원회

· 위원장/최대원, 지도/홍창민, 부지도/구명신
· 행정부장/최대원, 부감/김영수, 김경희
· 양육부장/오정현, 부감/김구형, 박영엽
행정부 교사
양육위원
강옥자 고상진 고재승 광영자 권윤희 김경혜 김금숙
김금순 김달현 김명곤 김문섭 김문정 김순남 김영숙
김영암 김영혜 김영희 김오래 김용숙 김월분 김은나
김은숙 김정태 김정희 김종춘 김종태 김지현 김필나
김홍기 김효정 문경자 박남주 박명엽박순옥 박송길
박영희 박철구 박태진 방남희 백재성 백옥심 서영자
손명희 손숙자 신정숙 신희순 염경자 유금열 유상순
윤수원 윤우선 윤장원 윤정미 윤정자 이금순 이달옥
이명숙 이명자 이석정 이수자 이신동 이실호 이영숙
이옥기 이윤자 이인성 이장하 이종숙 이종현 이진규
이학자 이혜수 이현남 이홍기 임신실 장영저 장유진

장희자전운배 정금연 정청길 정희공 조복덕 조성남
지순애 최 순 최말순 최이수 최하자 한광조 한혜순
허순자 허연옥 허인순 홍경선 홍경숙 홍혜숙 황순주
황일선 황종임

교육훈련원

· 선교연구원
원감/하대선, 부감/양종섭,
· 경로대학
학장/신성종, 부장/김경철,
지도/김용기, 부감/주원홍, 이혜숙
남교사 /
강진택 김보원 김세홍 김택선 서동식 신명성 엄기정
오인근 이계인 이동수 이용현 전용혜 정재복 한정선
황기용
여교사 /
필기복 신정순 최영애 손윤경 송부자 최영숙 이원화
이정숙 윤정식 이정순 서영남 이복희 윤명자 이연순
손윤미 박점순 이영애

출판국

· 국장/조선근, 지도/조동원, 부지도/변춘옥



◁ 책소개 ▷

환경문제: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양승훈 지음, CUP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 출판부, 1993

저자는 대학에서 자연과학(물리학)을 가르치는 교수이며,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에서 활동하면서 기독교세계관에 관한 강연과 글을 통해 사역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기독교 저널과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글들을 묶어 한 권의 책으로 펴낸 것이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이 밝히고 있듯이 환경 전문가이기 보다는 비전문가의 입장에서 쓴 글이다. 저자는 이 책을 펴내면서 몇 가지 변명(?)을 기꺼이 하고 있다. 첫째는 오늘날 환경문제는 전문가들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모든 비전문가들도 환경오염에 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환경문제가 기독교세계관의 핵심분야인 창조교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셋째로 환경보호는 피조세계를 잘 다스리고 가꾸라는 문화명령의 일부임을 지적하고 싶다는 것이다. 즉 이 자연을 잘 다스리고 가꾸라는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창 2:15)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일 뿐 아니라 이웃사랑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환경이 파괴될 때 일차적인 피해자는 사회적으로 약자들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할 환경관을 제시하면서, 극단적인 비성경적 환경관에 비해서 하나님의 소유권과 사람의 청지기 사명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잘못된 환경관에 의한 현대의 환경오염은 바르지 못한 기독교적 진보주의가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역시 인류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야 하며, 특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은 환경교육 밖에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도 현재 행해지고 있는 환경오염 방치책에 적극 참여하고 내 가정에서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기독교의 신앙적 세계관이 인간중심(Anthropocentric)에서 생명중심의 생태계를 중시하는 체계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속하여 있지는 않지만, 이 세상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피조세계)의 주인되시며, 우리는 관리자(청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 생태계 전체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하며, 그분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현장이기도 하다. 환경문제는 이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분명한 주장과 실천을 통해 해결을 모색해야 하는 긴급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이다. 장 봉 생 (목사, 제2교구, 고등부지도)

* 성탄절을 또 맞이하면서 *

함께 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

최영옥

(집사, 초등1부 교사, 제11교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적 예수님은 어린 시절 순한 양의 눈을 가지시고 아이들과 놀때엔 늘 양보만 하셨지요? 그리고 슬픔에 눈물 맺힌 친구를 보면 순한 양의 눈도 함께 슬퍼하셨겠지요.

예수님, 전 그렇지 못했어요. 싸움도 잘하고 어린 가슴에 미움도 많았지요. 예수님은 어릴 때 부모님을 무척 사랑하셨지요? 아버지 요셉과 같이 나무를 자르고 나르기도 하시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함으로 두 분에게 늘 흠족한 미소를 드렸겠지요.

저는 알아요. 십자가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시며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말씀하신 예수님ですよ.

예수님, 예수님은 한뼘 옷에 샌들을 신고 만지나는

땀을 흘리셨어요. 오늘 우리들의 가슴도 이렇게 두근거리는 걸요.

목자없는 양과 같음을 측은히 여기시면서.... 아버지 손수 흠으로 만든 사람들의 육신이 병들어 피로워하고 죽음앞에 통곡하는 여인들을 보시고 눈물 흘리신 주님, 나의 주님.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많을까요? 주님보다 열배, 이십배, 아니 백배 많이 가졌으면서도 늘 채워지지 않아 하나님께 헛된 기도로 투정을 하는 나, 주고 주고 또 주고 마침내 온 몸을 주신 예수님, 가장 사랑했던 자들에게 외면 당하시고 홀로 십자가를 끌고 넘어지며 가신 주님.... 그 주님의 모습에 가슴 막히는 사랑임에도 조그만 일에 분해하고 이웃과 나누지 못하

땅을 많이도 걸으셨지요? 많은 군중속에 싸여서, 혹은 홀로서서 외쳐 가르치기도 하시고 바닷가 모래밭에 무리를 앉게 하시고 자신은 뱃전에 서서 가르치기도 하셨지요.

해가 기울며 붉게 물든 구름에 그늘지는 광야에서 어린이를 품에 안으시고 하늘나라 이야기를 하셨지요.

사람들의 가슴이 쿵쾅거

고 용서하지 못하는 추운 내 모습에 옵니다.

예수님 세상에 계시면서 사람의 여러 모습들을 보시고 가슴이 아프셨지요.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의 완악한 마음을 보실 때, 죄와 질병에 고통하며 근심하는 자들을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 그때 우리와 제자들을 떠나서 홀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러 가셨나요?

예수님, 주님이 이 땅위에 오셨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요.

제가 서 있는 땅을 밟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먹고 주무시고 노하시고 기뻐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친히 만져 고쳐 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신 주님, 주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면 주님 품에 안기는 듯한 그런 위로를 어찌 내가 받았을까요? 어찌 어린애 같은 투정기도를 감히 드릴 수가 있을까요? 내가 기도드릴 때 주님은 고개를 끄덕이시죠?

"그래, 내가 세상에 너와 같이 있어서 알아. 네 죄된 마음을 내 연약함을, 네 필요를 다 알고 있단다. 인자의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 땅에 오셨던 나의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나의 주님, 항상 내 옆에 계신 나의 주님. 사랑해요.

제직원사진 촬영

아직 찍지 않은 제직 촬영 서둘러야

교회설립 40주년을 기념하여 펴낼 제직원 사진첩에 사용할 제직원 사진 촬영의 교구별 일정이 끝났다. 그러나 아직도 촬영하지 않은 제직들을 위해 계속해서 촬영업무를 하고 있다. 아직 찍지 않은 제직들은 빠른 시일내로 촬영에 임하기를 바라고 있다.

· 대상 : 원로장로, 장로, 교역자, 원로집사, 집사, 원로권사, 권사, 명예직권사, 남

여서리집사

· 촬영시간 :
주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50분까지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50분까지

· 촬영장소 : 선교관 407호(충현사진방)

◆ 동서남북 ◆

‘의식주와 염려’

오늘날 우리 나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늘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염려할 정도로 고달프지는 않다. 물론 아직도 이런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 많이 있지만 사회전체의 분위기는 빈곤이나 궁핍은 아니다. 즉 기본적인 의식주는 풍부하고 만족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런대로 해결하고 있다. 그런데 왜 의식주 문제가 우리에게 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등장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식주 문제로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간 적이 있단가 말이다. 그런데 왜 오늘날 모든 육신의 근원이 의식주 문제로 집약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육심때문이다. 의식주를 넘보다 더 풍성하게 하려는 육심때문이다. 그래서 결국 의식주 문제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불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염려'로까지 발전되는 것이다. 현재 가지고 있는 '의식주'로 만족하라. 왜 의식주를 더욱 확장하려고 하는가? 그런 의식주에 대한 염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기 전에 김도 주고, 더 좋은 옷도 주고, 더 좋은 음식도 줄 것이다. (마 6:25-34, 히 13:5,6)

◆ 93년을 마무리하면서 / 전도위원회 ◆

직능전도의 활성화로 전도의 다양화

임 성 환

(목사, 전도위원회 · 23교구 · 사랑부 지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감사하게 느껴진다. 충현의 큰 베에는 161개 전도회 지회와 15개 직능전도부가 힘차게 노를 저으며 전도하는 일로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있다. 위원장 손동은 장로를 중심으로한 전도회는 93년도 목회방침인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첫째, 전도중심적인 전도회로 만들자. 둘째, 모든 전도회원들이 참여하는 전도활동을 하자 셋째, 지속적인 전도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섬기자 넷째, 직능별 전도부를 활성화하여 전도의 다양성을 도모하자 다섯째, 전도대원을 지속적으로 훈련시키고 파송하자 여섯째, 북한선교와 민족복음화의 역량을 키우자는 목표를 세우고 1월 13, 14일 양일간에 일꾼훈련의 시간을 갖고 전도회 및 실행위원을 임명하며 전도회원 교육을 실시하고 전도지침을 홍보하였다. 금년도 전도위원회의 사업을 살펴본다.

1. 교회 배가운동 추진

"사람을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는 교회의 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전하자 예수, 채우자 교회, 키우자 천국일꾼'의 모토를 외치며 대신자를 작성하였다. 9월이 되면서 23개 전교구는 24시간 연속기도회를 실시하였고, 3차례의 구역장 특별교육을 마치면서 예수사랑 큰 잔치의 1차적인 준비가 끝났다. 이어서 추진본부에서는 각 분과별로 이 운동을 협력하며 각 교구별로 전도를 실시하여 10월 17일에는 '93예수사랑 큰잔치를 열었다. 이 운동을 통하여 모든 성도들은 전도는 하면된다라는 자신감과 함께 교회가 더욱 단합하는 기회가 되었으며 이날 초청된 자들 가운데 2143명이 결신카드를 제출하였다. 한편 예수사랑 큰잔치가 끝난 지금도 각 교구에서는 예수사랑 작은 잔치로 이어져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며 23,000통이 넘게 발송되었던 그리스도의 편지는 서서히 그 영향력을 발휘하여 매주 그리스도의 편지를 통하여 초청된 새신자들의 등록이 많다고 전해진다.

2. 지교회 지원교회 지원처에 대한 계속적 지원

8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되었던 이슬비 전도훈련에는 농어촌 및 특수지역 교역자들을 초청하여 우리 교회 일꾼들과 함께 훈련을 받게했다. 이 훈련을 통해서 전도의 가능성과 자신감을 갖게 했으며 23개 교구 161개 전도지회가 낸 회비는 모두가 150여개의 농어촌 교회 및 특수지역 교회와 선교기관과 군, 경, 교도소 등 특수기관 단체들에 후원하여 사역을 활발히 전개했다.

3. 농어촌 전도대 파송 및 농촌 교회 농산물 팔아주기

8월 2-12일까지 2차에 걸쳐서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17개 팀이 뜨거운 전도활동을 실시하였다. 그결과 농어촌 미자립 교회가 힘을 얻었고 많은 결신자를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참여했던 대원들은 전도의 기쁨과 보람을 맛보는 기회가 되었으며 복음화된 통

일과 민족복음화의 꿈을 꾸게 되었다. 특별히 이번에 파송된 전도대는 예년보다 더욱 치밀한 준비를 기하여 성경학교 교재와 울동 및 노래를 교육하여 파송하였으며 2차례의 집중적인 기도회를 가졌다. 아울러 농어촌 교역자들의 재교육의 기회를 만들어 교육하며 기도하는 훈련의 시간들도 가졌다.

4. 직능전도부의 활동

우리 교회 군전도부는 해마다 군목 후보생들을 초청하여 훈련시키고 군복음화를 후원하였다. 50명도 안되는 회원으로 시작된 군전도부는 500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하고 여러 군부대를 방문하며 전군신자화의 일선에 선 군목들을 지원하며 장병들을 위문하며 전도하고 지원활동을 하였다. 한편 2억 2천만원으로 2개의 군교회를 건축하였으며 1개의 대대교회를 세울 계획이며 올해 군전도부가 배운 세례인원은 1154명이다.

또한 경찰전도부에서는 서울시 경찰청, 서초경찰서, 강남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경찰전도를 위한 길을 지원하며 모색하는 등 예수사랑 큰 잔치의 날에도 서로간의 긴밀한 협력이 있었다.

의료전도부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의 11개 병원을 지원하며 본교회 교인들의 의료상담을 매주일 실시하여 한방, 양방을 합하여 2943명을 진료하였으며 치료하여 주었다. 또한 매주 목요일에는 순천향 병원에서 성경공부가 이루어 지고 있다(지도 임성환 목사).

학원전도부에서는 11개 학교를 지원하며 구제사업으로 장학생을 지원하며 300권의 성경 찬송가를 전도위원회의 보조로 지원하였다.

문서전도부는 약 1000권의 성경 찬송 보급을 실시하였으며 도서지역에 필요한 문서 전도를 지원하고 있다. 메스컴 전도부에서는 방송국 신문사 등을 통해 전도활동을 실시하며 매주 100개 이상의 테이프를 보급하며 주간 충현 및 주간 충현은 540개소로 보급하고 있다. 한편 특수전도부는 특수전도 사역을 담당하는 참빛의 집 외에 21여 곳을 돕고 있으며 서울역 앞 광장과 명동 거리 찬양전도를 후원하고 있다.

교정 전도부에서는 영등포 교도소 방문외 3개의 교도소 및 소년원을 방문하여 위문하였으며 법조인전도부에서는 매주일 오전 10시에서 13시까지 법조인 사무실에서 소송상담이 100여건 일반상담 및 세무 행정 계속상담 80건으로 봉사하였다. 실업인 전도부에서는 매달 기도회를 가졌으며 교회내 실직자들의 직장 알선과 정보교환으로 봉사했다. 각 전도부에서 열심히 봉사해 주

◆ 금주에 기도할 제목 ◆

다함께
기도합시다



1. 원로목사님과 당회장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 김창인 목사님 : 15일(수) 원로목사 추대예배 설교 (장충교회)
· 신성종 목사님 : 15일(수) 기독교 학술원 특강 (창신교회), 17일(금) 육군사관학교 종강예배 설교 (육군사관학교)
2. 우르과이라운드로 인한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게 하소서.
3. 연말을 맞이하여 지금까지의 잘못을 뉘우치며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4.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소서.
5.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소서.

신 모든 전도회원들께 감사를 드린다.

5. 전도대원 훈련

봄철과 가을 두번에 걸친 전도훈련은 전도요원을 만들어 각 지역의 일꾼으로 양성하였으며, 전도의 정병들을 양성하였고, 전도의 분위기를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 또한 농어촌 전도대가 파송될 때는 전도대의 주력요원으로 활동을 하였다. 9월 이슬비 전도학교를 운영하면서 전교인의 전도훈련을 도왔다. 아울러 그리스도의 편지를 정착시키는 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현재 그리스도의 편지는 본당 로비에 12신으로 준비되어 있으며 양육편지로 26신이 간사실과 새가족실에 준비되어 있다.

6. 지회별 연합활동과 교회내 봉사활동

93년에 들어오면서 충현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구가 23교구로 늘어나게 되었다. 따라서 161개 전도지회가 출발되었고 미미하게 출발한 전도회는 일꾼부재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1년동안 각전도 지회는 크게 성장되었다. 특히 연합회 활동으로는 한나, 에스더 여전도회를 중심으로한 기근의 나라 소말리아 돕기 운동을 펼쳤으며 농어촌을 돕기위하여 미역팔아주기, 감자팔아주기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내기도 했다. 남전도회에서는 체육대회를 통한 친목의 시간도 가졌다.

교회내 봉사로서는 교회의 각종 활동 때마다 전도회원들의 안내, 식당봉사, 노력봉사 활동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매주 월요일 목회자 교육 시간에는 주로 마리아 전도회에서 안내 및 식당 봉사를 담당하였고, 충현 올림픽에서는 무디아가 중심으로 매점을 운영하였다.

7. 94년도를 위한 전망

교회는 본질적으로 세상을 위한 확고한 책임이 있다. 항상 세상을 내 이웃으로 보아야 하며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종의 모습을 지녀야 할 것이다. 교회는 세상의 통치자로 군림해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전도회는 보다 유연성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며 복음의 빛을 잃지 않는 한 강도 만난 세상을 향한 선한 이웃으로서 개방적이어야 한다.

우리 전도회는 93년도에 꼭 하고 싶었던 일이 몇가지 있었다. 직능별 전도부의 활성화였다. 이미 조직된 실업, 의료, 군, 경찰, 법조, 학원, 문서, 메스컴, 특수 전도부가 많은 활동을 하였고 동시에 94년에는 체육, 예능, 금융, 교수 등 다양한 전도부 조직을 통하여 각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있게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바란다. 각 교구의 전도지회와 직능 전도부가 전도 위원회를 구심점으로 지역중심 전도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기도한다.

이일을 위하여 먼저 각 전도지회와 기관들은 94년도에 전도할 전도대상자와 기관을 정하고 이웃들을 전도회에 초청하며 찾아가 기도 하여 전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개인전도, 메스컴 전도, 대중전도, 집중전도 등을 실시하며 계속적인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야겠으며, 교회적으로는 국외에 성장하는 교회의 전도위원회와 자매결연을 맺으며 상호 교류와 정보교환을 이루어 나가 세계 복음화의 일부분을 담당해야 하겠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날까지 우리 충현교회는 충성스럽게 전도하여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사명을 완수해 갈 것이다.



꽃이 있는 풍경

이 있는 풍경이란 제목으로 열린다.

전문 사진작가인 김종태 집사의 사진전시회가 12월 8일부터 14일까지 코엑스포텔(종로구 연지동 27번지 연강빌딩 1층, ☎ 708-5508~9)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는 전국을 다니며 찍은 꽃과 꽃밭의 사진들로 "꽃이 있는 풍경"이란 제목으로 열린다.

김종태 개인전

· 일시 : 1993.12.8 ~ 14 OPEN AM 10:00 ~ CLOSE PM 6:00
· 장소 : 코엑스포텔
· 초대인사 : '92.8(수) 오후 3 ~ 6시